

感傷紀行

金錫澈 — 建築設計事務所 아기반

'81. 4. 대구

경치 속을 기차가 간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 속을 간다. 이 가난한 갈등의 나라에 유례없는 인구의 밀도가 저 경치들 때문에 비뚤한 모양이다. 첫봄의 산색같은 풍만하고 선정적인 풍취가 있다. 소나무들 사이의 연록색 잡목은 꽃같이 화사하다. 산록에 얼키어 있는 논들이 감탄스럽다. 어디 멀리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간혹 파수밭들이 연변을 이어가는 초봄 경부선 철도를 탄다. 배꽃이 하얗게 피어 있다. 자그만 개울들, 벌리 접치어 이어지는 산들, 그 사이들로 바람이 자취가 되어 있는 작은 강들이 푸른 물색을 하면서 흘러 간다.

대구에서 30분 가량 더 시골로 들어선다. 높이 선 버드나무가 저녁 어스름에 문혀, 터덜거리는 자갈길가에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서 있는 시골길의 정취가 맑게 가슴으로 와 닿는다. 뒷산측으로 대숲이 있어 바람이 소리를 한다. 별당에 앉아 박형집에서 담은 밀주를 마신다. 가로 2미터 쯤의 회랑을 두고 집앞 모두가 연못이다. 가운데 섬같은 것이 있다. 어둑하게 하늘이 비치고 달빛이 바람에 흔들거린다. 연못가의 낮은담들과 멀리 바라보이는 경치들과 하늘과 바람들이 기묘한 정경을 보인다. 극적인 인공의 한 세계를 체험한다. 밤이 늦어 안채 건넌방에 진을 치고 밤을 새워 마실 준비를 한다. 들기름 냄새가 기분좋은 장판에 앉는다. 벽은 모두 기둥까지, 문틀까지 한지로 발라 있다. 바닥은 깨끗하다. 이 작은 방에 창까지 달린 다락문 외에도 벵이나 장지문이 있다. 옆마루, 앞마루, 뒷

마루 등, 방 하나에 참 많은 것들이 이어 있다. 장작타는 소리가 나며 방에 김이 오른다. 주안상을 주위로 밥적막 속에 한지로 둘러 싸인, 도치가 창이고 문이면서 다 같은 색깔들로 해서 밀실같은 방에 앉아 뒷산 새소리를 들으며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건축공간의 어느 한 장면을 만끽한다. 매우 편안하고 익숙한 어느 공간에 있는 느낌이다. 밤이 깊었다. 술을 마시고 대취하였다. 뒷산의 나무들이 산소리를 한다.

'81. 4. 태고정

아침 사람들 소리에 잠이 깨었다. 뒷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면서 내려다 보이는 집들이 이제 뚜렷한 윤곽들을 한다. 조그만 산길을 가니 보이지 않던 먼 경치들이 보이다가 낙동강이 보이기 시작한다. 강이 흐른다. 멀리 다리가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산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고 바람의 흔적이 있는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 가면서 산들이 그 뒤로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다. 문득 사는 일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박형의 안내로 박씨 문중이 살던 태고정이 있는 마을로 간다. 이런 식의 문중마을은 처음 보는 셈이다. 많이를 술가하여 떠나고 유적처럼 빈집들이 대부분인, 반은 죽어 있는 마을이다. 젊은 사람은 없어 보인다. 소프트 웨어가 제거된 하드 웨어만인 환상의 마을을 보는 듯한 착각조차 있다. 담들과 지붕선들이 얼키면서 마을이 전개되어 간다. 하나의 집이 시작이 되어 이웃집들이 만들어지고 차츰 모여가면서 마을의 공간들이 형성

되어 있는데 상식적인 경우와 달리 마을 전체의 형식보다 집안과의 형식이 오히려 선명하다.

집과 담과 지붕들의 건축적 맥락이 마을로의 전개보다는 집안의 律調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대개 고건축을 접근하는 방식이 근거없는 몰두나 열광에 경시되어 진상을 아는 데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건축 집합의 방식은 도시형식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을 위쪽으로 사육신을 모신 태고정이 있고 주위로 그 런류의 건물들이 서 있다.

민가들이 자연스러운 경사로 이어 지다가 단층이 지면서 이런 격식의 집들이 서 있다. 대립적, 이원적으로 마을과 병립하고 있다. 멀리 보이는 경치들, 주위의 농경지들, 뒷산과 어우러져 있는 입지들은 탁월하여 보이 나 각 집의 무성의한 정착은 부분적인 건축적 성과를 감안하여도 납득하기 힘들다. 안채, 바깥채, 앞뜰, 뒷뜰로 이어지는 아름다움은 여전하나 이런 일은 어느 보편건축에도 다 있는 일이다. 보편적인 가치, 인간이 모여 사는 일이 갖는 집합의 원리같은 것을 이 마을은 가지지 않고 있어 보인다. 전체로의 울조와 개체로의 전개가 乖離하여 있다. 사람들이 없고 많은 것이 변해진 마을이기는 해도 기본적인 구성이 민속의 마을에서 우리가 보던 것을 크게 넘지 않는다. 이 조성중 때 거의 골격이 이루어진 마을인데도 이 마을에서 당시의 논리와 형이상학이 보이지 않는다.

건축이나 도시의 참다운 모습은 당시의 실상, 그 象形文字인데 이 마을에는 그 상형문자들 대신 게으른 장인들의 무성의만이 지금 느껴지는 일은 문화재 보수공사의 엉뚱한 파괴들 때문만일지. 무엇인가 빗겨가는 듯한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반쯤 비어 있는 마을 어느 빈집에 앉아 황형과 한참 토론하였다. 한국적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한다. 대개 우리는 게으른 무관심이나 근거없는 열광으로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접근한다. 건축공부하는 사람다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

교적 논리적 접근이 미숙하지만 느낌의 정밀한 것은 있고 이런 우리의 실망은 어느 측면의 진상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한국건축을 자의식이 적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때가 와야 할 것이다.

'81. 5. 서울, 교보빌딩

교보빌딩이 문을 열었다. 도시의 기하학에 보다는 자본의 산술에 의해 재단된 육면체의 무기미한 입체속에 한 도시적 遭遇가 시작되었다. 광화문 본래였던 도시적 입지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은 내가 건축을 해서 느끼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합작인 중앙청(일제하 총독부건물)을 정면으로 해서 미국인에 의한 정부종합청사, 경제기획원과 미국대사관, 발버둥에 가까운 한국적 立像을 企圖하였으나 건축적 성과에 불구하고 도시적 인식의 차질로 스스로 이 거리에서 영거주층 소외된 세종문화회관, 도시에서의 자본의 입지를 혼동한 현대건설사옥, 절충주의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동아일보사옥, 유일하지만 안스러워지는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국제극장 등이 어우러져 있는 광화문 네거리에 일본적 감각을 이배리적 미국식으로 해석한 주일 미국대사관이 자본 투자의 산술로 절단된 입체로 어느날 우리 앞에 나타났다.

대지의 성격에 대한 특수감정의 물이해가 건물의 축조기술에 대한 정확한 접근방식에 불구하고 눈에 띈다. 이곳은 북악산과 인왕산 그리고 남산이 이어지는 서울의 중요한 장소이다. 그리고 이곳은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이 지점은 바로 서울의 중심부이다. 이곳에는 서울의 도시다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 할 자리다. 서울은 그 입지에 있어서 아름다운 도시다. 서울의 몇 장소들은 특히 아름답다. 산과 하늘과 강이 토지 속에 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광화문 네거리는 그런 장소 중의 하나다. 그런데 차일을 벗고 나타난 건물은 도시의 어디에서나 보게되는 전형적 한 예에 불과하다. 거대한 입체를 일본적 격자와 선들로 구성하면서 입구의 트임을 코어 윌을 통해 동

측 아트리움으로 끌고 나간 건축적 전개는 테크닉은 훌륭하다. 그런데 왜 이런 집이, 이제 마지막 남기도 하였지만 광화문 네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비각측 네거리의 도시적 가능성을 담당케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지하도가 있고 지하철이 지나고 많은 자동차와 사람의 흐름이 거리에 있고 북악산과 남산이 이어지는 서울의 주경관이 서는 이곳이 단순한 건축술의 교과서적 해석으로 끝난 일이 안스럽다. 입구홀에서 전개되는 내부공간의 다채로운 다각적 연출은 고층건물의 저층부다운 건축의 문법에는 새로운 일리의 장을 보여주지만 자본의 비정한 선심을 보는 섬뜩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준층 임대비의 다섯배가 되는 저층부를 과감히 오픈 스페이스로 한 내부의 처리나 대리석의 현란한 쓰임 등은 정작 기준층의 초라한 처리와 함께 자본제국적 비리의 건축술을 보는 듯 하다. 이 건물은 도시의 도시다움이나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나 이 건물에 당도할 사람들의 도시적 활기나 교양보다는 건축가의 자기만만한 자기과시의 여러 면모를 상기시키게 한다. 물론 건축가는 비자립적 분야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작가정신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될 수 없는 인간과 도시에 대한 의무와 헌신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시저펠리」의 퍼시픽 디자인 센터나 주일본 미국대사관 역시 그러한 작가정신의 결여가 느껴지는 건물이었다. 자기가 하게되는 일의 시일년대에 의한 해석과 주어진 대지의 도시적 개연성에 대한 인식은 건축가로서의 출발이다. 과거의 경우 도시는 서서히 성장하고 도시의 모든 장소는 이름지어져 있었다.

오늘에 와서 도시는 외형적성장 이외 도시생활의 다각적 변화에 따른 전환의 여러 계기를——즉 도시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변전하는 복합적 진전의 와중에 있다. 건축가에게는 항상 맹목적 사실의 변수와 대지의 도시적 개연성의 명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자질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에 새로운 더함의 질서를 의도하는 능력이다. 교보빌딩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많은

도시적 개연성과 건축적 사건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자기 탈출적인 전근대적 건축술에 의한 일본감각적 미제건물이다. 저층부의 메이저 스페이스는 자본의 지배적 과시가 건축공간의 휴머니티를 대신하고 각층간 연결의 여러 기법은 시종 과시적 연출이며 도시와 연속되는 동서정면의 처리 역시 약간의 설정의 절묘함을 제하면 지나치게 일반적인 개념적 처리에 불과하다.

교보빌딩을 보면서 느끼는 미묘한 당혹의 하나는 그 도시를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일은 간혹 정곡을 보는 수는 있으나 도시의 실상인바의 도시적 조우의 가짓수를 모르게 되어 비현실적 피리를 야기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술이라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건축가의 포괄적 이해와 애정을 결핍하는 경우 이와 같은 완벽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과장과 성세의 성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교보빌딩은 교과서에 실려서 좋은 건축문법의 현상적 구현의 한 예이지만, 반면 오늘날의 건축이 탈피해야 하는 반현실적 건축의 한 예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81. 6. 플라자마이올의 동굴술집

코트라 박형의 안내를 받아 뽕만한 그의 차에 다섯이 실려서 어제밤 보았던 플라자마이올의 뒷길로 동굴술집을 찾았다. 본래는 여기가 마드리드의 골목들이다. 이런 골목들이 여덟 문을 통해서 광장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들어간 술집은 폭이 4미터쯤 되는 보울트의 아래인데 두개층으로 되어 있고 입구 카운터를 지나 세개의 반독립된 방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방이자 통로인 볼트 속에 열일곱살쯤 된 여자아이들이 모여 앉아 피우고 마시고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들은 통로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홀라맹코인지 디스크인지를 춘다. 우리는 통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았다. 다들 예쁘고 발랄하고 건강해보인다. 장미 한송이씩을 들고, 대학생은 아직 아닌듯 한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 어른들만 다니는 듯한 술집에 친진난만한 얼굴들을 하고 앉아 있다. 이 아가씨들의 섬세한 충동과 흥분과 즐거움의 미묘한 활동을 보고 웃

는다. 입가에 손을 대고 까르르 웃다가 귀에 입을 대면서 무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한다. 이러한 와중에 이 술집에 들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가세가 되어 그야말로 가관이 되었다. 우리도 나가서 춤을 추고 아이들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야말로 신기한 일은 이 아가씨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남과 춤도 추면서 어느 하나 몸을 흐트리는 구석이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파조의 어느 가벼운 축제를 맞는 그런 모습들이다. 학교 때 같이 놀던, 소위 명문의 아가씨들이 모처럼 기분을 내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 경우 잠시 술집아가씨들과 비슷하게 되거나 박자 모르는 삼천포가 되는 둘 중의 하나였는데 이 아가씨들의 맑고 밝은 모습들을 보니 감개스럽다.

플라자마이올은 한때는 해적들의 밀수품이 거래되던 장소였다는데 지금은 모두 이러한 흥술술집들로 변화하였다. 축제의 광장이 있는 그 뒷골목들의 이런 정경은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꽃같은 해후를 낳는다.

'81. 6. 바찌카

밤 11시 가까이 마드리드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전통적인 홀라맹코의 쇼가 있는 바찌카로 갔다. 기대하였던 집시풍의 그런 무대는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일종의 민속공연장 같은 곳이다. 이런 곳은 좀더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본래의 것의 일상화로서의 수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가설무대같은 이런 곳은 어떨까 싶다. 그러나 저러나 무대에 네여자와 두남자가 등장하고 원색의 조명이 밝혀진다.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카스타넷을 울리는데 손뼉소리가 소리의 분절과 리듬의 맥락이 선명하여 훌륭한 악기의 구실을 한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악기스럽다.

서서히, 서서히 춤을 추기 시작한다. 칼멘처럼 생긴 아가씨가 스타인모양이다. 넷이 어울리다 흠여지다가 각기 각대로 다가닥 다가닥하다가 또 들썩 마주 엉키다가 드디어는 하나가 정면에 나서서 선정적인 율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앞의 군무와 잘 이어져 회한한 전후의 맥락이 있다. 여자

의 모습도, 몸도, 그리고 그 율동도, 뒤의 박수소리, 악기의 소리들이 모두가 사람끼리의 그리움과 들뜬의 삭막을 선정적인 해후의 소리와 몸짓으로 변조시키고 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만감이 있다. 이 나라의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볼 때는 괴이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할 때 보면 그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다.

'81. 6. 콜론광장과 국립문화회관

국립 운운할 때마다 우리는 민중, 시민, 자유, 이런 생각대신 전통, 민족, 국가 따위의 생각을 한다. 국립박물관하면 웅장한 스케일의 전통양식의 거대한 형상이 되고 하다못해 문화자만 들어가도 민족의 얼이 나온다.

국립이라는 말은 국세로 그 공사비와 운영비가 지출된다는 뜻인데, 세금을 내는 민중이나 시민이나 세금을 내는 목적인 자유와 시민적 권리대신 살롱적인 문화양식이 난데없이 득세한다. 국립극장, 국립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게다가 극장 앞에서 덧받은 돈을 모아 지은 문예극장이나 미술회관에 이르기까지 특수계층, 특수계급을 위한 장소가 아닌 것이 없다.

국립 운운하는 건물들이야말로 도시의 도시다운과 민중과 연계된 시민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기이한 노릇이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여기 콜론광장의 국립문화회관은 잘 표현하고 있다. 부지 주위의 도시적 유적과 흐름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기둥이 지하로 들어가고 반층 정도 레벨 업된 광장이 그 위에 만들어져 있다. 원래의 콜론광장을 더 확대하여 새로운 콜론광장으로 만들고 그 입구는 물의 막이 쳐진 화사드가 되면서 광장축으로 면해 있다. 이 건물이 서면서 콜론광장은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주위의 모든 도시적 유적은 새로운 비전들을 갖게 되었다.

시원한 지하에는 극장이 있고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에 마침 젊은 여덟작가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감동하였다. 그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 창조를 향한 집념, 제작에 대한 성실한 접근이 躍如하다.

서울서 전시회마다 느껴어지던 아

류들이 갖는 의도 투성이인 자위적인 해피 대신 여기는 건장한 작가들의 자기성찰과 괴뇌와 파시가 있다. 새로 만들어진 인공토지의 처리에 주위를 더 개입시키는 적극적인 유도의 테크닉이 부족하고 극장이나 미술관도 처음 설정의 부연인 사건의 디테일이 결여되었다. 이 건축가는 마드리드를 잘 알고 좋아하고 국립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 시작하였으나 최종의 성과들에까지 이루어내는 힘이 부족하였던듯 하다.

그러나 이 국립문화회관은 도시에서의 좋은 건축물이 갖는 도시이고 건축인 한 실상을 보여준다.

인공토지에 야외전시장과 극장, 그 가운데의 중정을 통한 인공토지의 입체적 처리 등이 더 첨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주위의 화랑가나 앞 콜론광장이 주는 도시적 만남의 양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방식의 진화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81. 6. 툴레도

도시와 건축과 예술에 있어서 툴레도는 도처에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로마의 신들과 유대교와 회교와 기독교의 제적이 한 마을 속에 이웃하여 있다. 강의 원형 루프 속에 든 지형의 전략적 지리적 천혜를 높이 평가한 로마인들이 여기에 툴레를 세웠다. 6세기경 만족에게 점령되어 그들의 왕국이 되었다가 다시 8세기에 무어인들에게 코르도바와 함께 정복되고 11세기경에서야 반란 끝에 되찾아 독립왕국인 수도가 되었다. 당시 이 도시는 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커뮤니티가 혼재된 흥청거리는 도시였다. 툴레도는 수세기 동안 여러 종족과 종교가 혼란되어 오다가 기독교의 율법 아래 이상적인 진화의 경우를 보인 도시다. 여기에는 모슬렘이 있고 로마네스크가 있고 쥬가 있으며 드디어는 툴레디쉬가 있는 곳이다. 역사의 진화라는 것, 이질문명의 전이를 이 견고한 성채의 도시는 보여준다.

중세기 도시의 전형적인 성곽도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산을 격하고 강이 막힌 천연의 요새인 산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조적

조 특유의 생명력으로 해서 과거의 상태가 많이 보존되어 있고 새로운 도시확대가 가능한 도시입지가 아니어서 과거의 도시가 대수선되는 정도의 변형만 있고 도시기능의 확대도 기왕의 흐름이 연장되는 정도만 되어 있어 도처에 보이는 자동차만 아니면 세월이 망각된 바로 중세인 그런 도시다. 멀리서 보는 산정의 성곽과 옛 도시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감개를 준다. 그림이나 사진에서만 보았던 과거의 도시, 지금 그 도시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전 도시가 황토 빛깔이다. 산들이 겹겹한 가운데 강이 흐르고 사방으로 트여 있는 도시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건축이다. 천년전의 도시가 원형 그대로 있다. 산기슭을 따라, 아마 마차길이었을 폭이 4미터 전후인 램프형 식인 길을 따라 4,5층 집들이 계속되다가 폭이 2,3미터 되는, 계단이 더러 생기는 작은 골목으로 연속된다. 길이 사방으로 이어가고 집들의 외곽을 형성하며 넓어지기도 하고 다시 작은길로 연결되기도 한다. 군데군데 조그만 광장이 생긴다. 벽들은 집의 외벽이 아니라 길의 내벽이고 지붕선들로 윤곽된 하늘은 도시의 천정이며 기슭을 따라 오르내리는 길은 이렇게 이어져가는 건축의 바닥이다.

여기서의 길은 2차원이 아닌 3차원인 도시공간 형식의 기본적인 요소로 인식이 되어 있다. 집의 모든 건축적 감각은 그러한 의도에서 장식되고 계량된다. 건축형식의 기본적 문법은 도시형식의 부연에 불과하다. 중요한 모든 것은 도시형식이다. 건축은 도시형식의 한 부분 속에 그 진상이 새로운 더함을 말한다.

모든 성곽도시가 그러하였는지 틀레도 역시 자체에서 나는 재료만으로 이 도시를 만들었다. 황토색 벽돌과 크게 혹은 작게 조성된 현지의 돌들과 나무들만으로 이 거대한 도시가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도시의 공간형식의 기본이 길이었기 때문에 유례없이 훌륭한 해조를 성취하고 있다. 도시의 색깔이라는 것이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실감한다. 황토색의 변조가 푸른 하늘과 경치들과 벽을 타고 있는 녹색의 꽃들로 해서 아름다운 안정감을 준다. 하늘과 멀리 경치

가 이 도시와 하나인 것으로 대위되어 있다. 자연의 쓰임새가 만드는 격이 놀랄만하다.

도시는 건물의 연장이고 건축은 도시의 부분이며 모든 도시의 디테일이나 건축의 부분은 이러한 구성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개구부벽의 처리, 박공의 단속적 전개, 기초적 매스의 조합 등에서 그들은 이러한 도시원리의 울조를 더욱 부연시키고 있다. 틀레도는 살아 있는 도시다. 틀레도는 구경용 관광도시가 아니다. 틀레도의 시민들은 새로 번창하는 개발도상국가의 바쁜 도시의 시민들 같이 바쁘다. 천년전에 만들어진 하드웨어 속에 이들은 어색한 것하나 없이 살고 있다.

우리는 변화라는 말의 진상을 모르고 있다. 사람이 군을 이루고 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원시의 마을과 도시의 인간집합에는 집합의 상징형식이 있어 거의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경주와 같이 책으로만 형상이 남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상징형식의 피멸은 결국 하드웨어의 파탄을 가져와 변화라는 것에 당도하여 폐허가 되거나 시대의 쓰레기장이 되거나 한다. 복원된 유적들 말고는 팔기 위해 지은 집만으로 가득찬 경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독교의 개화와 불교문화의 비유적 상징을 보는 듯하다.

'81. 6. 피카소 미술관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은 한 위대한 예술가의 궤적이기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기에게 닥아온 세계와 자아와 이웃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애정의 기록이다. 초기의 습작들에서부터 만년의 천진스러운 파격에 이르기까지 그의 많은 것을 비교적 연대기적으로 모아 두었다. 골목 속의 로만고딕양식인 중정이 돌 건너 접치어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이다. 바르셀로나에 와서 피카소나 가우디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바르셀로나적인 고딕식 건물이 현대회화의 실험과 도전의 남상이 그의 박물관이 되어 있는 것이 미소롭다. 바르셀로나가 가진 열기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이다.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아메리카대륙을 간 사람들이 아직

이 거리를 다니고 있다. 피카소는 수천 수만의 피카소의 한 상징으로 의인화 되었다는 느낌이 여기 바르셀로나에 와서 암시같이 느껴진다. 그의 그림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활의 태반을 이국에서 보낸 이 천재가 한번도 그의 본래인 자아와 자기의 이웃과 그러한 자아와 이웃의 배경인 인간에 대한 철저할 정도의 사랑과 이해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기법은 무수한 변천을 거듭하였지만 그의 그림은 모두 같은 그림이었다. 그야말로 교양의 후예이고 가우디의 친구며 칼멘의 이웃이었다. 사적 형이상학의 트릭을 헤치고 그는 항상 집에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예기치 않는 순간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구상적인 확신과 즐거움으로 만들었다.

우리 세기의 위대한 영혼으로서 그는 놀라운 명확성을 가지고 색깔 속에, 형태 속에 자신을 표현한다. 그는 스페인어를 깊이 사랑한 사람이다. 언어는 국가보다 더 불가피한 것이다. 그는 그의 모국어를 통해 방언과 시간성의 공간을 극복한 아름다움과 진실의 모습을 엄숙한 기도와 유쾌한 해학의 색채로 보여준다. 한 위대한 예술가를 가지는 민족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바로 그들의 천재를 만든 것이다.

나는 바르셀로나의 도처에서 피카소를 만났다. 옷집의 천진스러운 미소를 띤 아름답던 아가씨, 밤 2시까지 네시간을 같이 마신 길가 카페의 아저씨, 산타마리아호의 잔해, 바리오고디크, 귀엘공원의 천진난만한 아이들, 밤 11시의 음악회에 모여든 남녀들. 피카소 뮤지엄은 예술을 수수께끼처럼 회랑에서 백일의 태양 속에 끌고 나온다. 피카소의 그림들은 예술을 진보하지 않고 단지 동일한 원형적 체험을 그대로 그 시대의 관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며 위대한 예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진술은 시간의 화살에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정말 위대한 인간이며 우리의 친구였다.

'81. 7. 바르셀로나, 바자르

바자르가 미사 후마다 시작된다는 말이 율광장 옆 성당으로 갔다. 차가

다니는 길에 문이 바로 면하여 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엄숙하지 않고 일상적인 느낌이 들어 안심이다. 우리는 사후에 대해서 생각 안하려고 애를 쓴다.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일은 일종의 기억에 불과하다. 삼개월 시한부 삶인 사람의 일상은 어느 경우나 다른 빛깔이 된다.

우리는 수십년 시한부를 살고 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수개월 시한부 삶인 사람이 아는 죽음, 종교, 가족이라는 그 말들이 과연 죽음을 안다는 일로 해서 일상의 빛깔까지 다르게 하는가. 안다는 일은 일상의 무슨 그림자가 되지 않는 두뇌 속의 각인, 작동하지 않는 메모리에 불과한,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미망적인 것이 아닌지.

종교적 생활의 일상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은 자신을 받치고 있는 잠재적 뿌리인 어머니즘과의 이별을 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가 기독교가 엄청난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도처가 교회인이 나라에서 종교란에 “무” 혹은 “불교”라고 적게되는 것도 그 연유이고 기독교인에 대한 약간의 어색한 느낌을 갖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당에 온 사람들은 마실을 가듯 여기에 온 것 같다. 집전의 말들, 성가대와 파이프 오르간과 이들의 편안한 얼굴들과 성채스러운 성당이 본래부터였던 것처럼 어울리어 있다. 이런 것이 종교건축의 한 모습이 아닌지.

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바자르로 갔다. 동대문시장과 비슷하다. 원래 장치된 시장은 비상업적요소가 있다. 차츰 마켓트는 상인의 손을 떠나 장치와 정보와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장터는 장사꾼의 퍼스널리티가 지배하는 경쟁터이다. 장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신용도 필요하고 임기응변도 있어야 한다. 경제가 인간집합의 한 본질적 부분인 것처럼 항상 자유스러운 교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중계하고 진작시키는 것이 상인들의 일이다. 인구의 과도한 집합과 상품의 폭주가 우리에게서 장터를 빼앗아 간 것이다. 장터는 사람이 모

이는 곳이다. 가치라는 말이 많은 경우 화폐로의 계량인 것을 잊는 수가 많다. 사람들은 모두 돈에 초연하고자 하는 남득할 수 없는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 가치있는 생활, 진실한 인간이라는 말은 가학성적인 냄새마저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장터에 와서는 그들의 욕망이 계량되는 것을 만끽하며 다닌다.

여기 이 바자르의 미사 후에 서는 장터스러운 분위기는 그러나 모든 것을 슈퍼마켓과 쇼핑몰 혹은 센터라는 이름의 장치상업에 잃어버린 사람들끼리 만든 가설무대 같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러 꼭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생태의 매듭을 보러 오는 것이다. 지금 이 바자르는 그 순환의 사슬이다. 토막이나 있는 아무 것도 아닌 복원된 삼류 고건축같다. 이 바자르가 성당 옆에서 매주 일요일 성당이 끝나지는 시간부터 열린다. 이것은 무슨 우연일까,

'81. 6. 바르셀로나, 플라자 델레이의 밤 야외음악회

바 리오고디크의 킹스퀘어에서 구경한 플라자 델레이의 밤 11시 야외음악회는 사는 일의 한 즐거움이었다. 밤 어둠 속의 바리오고디크는 낮과는 다른 정취가 있다. 불이 밝혀지고 컴컴한 하늘 위로 바르셀레스가 비상하고 환한 돌길들은 검푸른 하늘과 조우하고 양쪽으로 석조기단의 장중한 그래픽비티가 굴곡한다. 길에 퍼질러 앉은 젊은 학생들, 껴안고 걸어가는 남녀들, 문득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설레여지는 눈이 큰 여자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차츰 모여든다.

불이 밝혀어진 석벽들의 디테일은 유적스럽고 서로 높이와 깊이가 다른 석벽의 겹침이 단층을 이루며 하늘쪽으로 열린 사이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쳐진다. 나무의자들을 놓고 오륙백가까운 사람이 중정에 모였다. 성당의 종이 반시간마다 골목을 울리고 사람들의 수련거리는 기다림이 고조되면 서 무대 위로 기타를 든 세명의 연주자가 나타난다. 가운데에 기타를 든 여자가수가 서고 양측으로 두 남자가 서너개씩의 기타와 만돌린을 준비한다. 중정을 울리는 박수소리의 여운 속 간결한 인사에 바로 이어서 청영

한 목소리가 스페인의 가곡을 부른다. 기타의 반주도 훌륭하였으며 여가수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와 우아한 모습은 벌써 옛새제 4 시간씩이나 잠 못 자고 걸어다니던 피곤을 청정하게 하는 듯하다.

높고 낮은 석벽들의 반향으로 소리들은 더욱 고조된 정서적 울조를 보인다. 이 사람들도 잘 아는 어느 노래가 나오면 다같이 따라 부른다. 감동스럽다. 청량한 목소리가 가슴에 무방비상태로 퍼져온다. 돌바닥, 돌벽, 검푸른 하늘, 그리고 여기의 이 음들, 이 소리들, 이 진지한 얼굴들—— 플라자 델레이의 밤 야외음악회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의 아름다움의 순간들——바로 그런 것이었다.

'81. 6. 가우디

귀 엘공윈, 카사파밀리아, 카사밀러, 카사바틀로. 건축은 사회생활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건축은 알 수 없는 자아와의 만남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환상과 실재 사이의 막은 얽은 것이다. 건축이 개인의 삶에 작용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예술가는 인간의 천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계를 창조해가려는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몸이 수백만개의 세포로 되어 있드시 우리의 기억은 추억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은 자라고 자라서 그 자체로부터 양분을 얻어 거듭 새롭게 되어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귀엘공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침잠된 환상과 실재의 꿈과 열망, 천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유의 회복을 말하여준다. 바다가 보이는 황량한 산록에 가우디는 인간이 일상에서 망각한 자유의 빛깔, 사회생활에서 소외된 환상의 정체를 보여준다.

'81. 7. 코펜하겐, 티볼리가든

시 청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 옷깃을 세우고 가족들이 나와 간단한 간식을 즐긴다. 광장의 크기와 길이와 주위의 건물이 주는 가라앉은 듯한 약간은 권태스러운 침잠이 있는 가운데 가벼운 미소들이 오간다. 바

로 이걸 도시 한가운데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두 형식으로 장치된 130년 전에 만들어진 티볼리공원이 있다.

가을, 겨울은 낮 세시부터 어둑해져 이 도시다운 장소가 된다. 전혀 다른 것이 되는 파조가 한 장소에 한 장치로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지만 실은 시민의 놀이터이다. 기후와 풍토가 사람에게 주는 연유를 우리는 잊고 있었다. 바르셀로나와 여기는 무엇인가 많이 다르다. 동물의 생태가 기후와 풍토와 동물적 속성에 구속되듯이 인간의 생태는 역사라든지 개인적 모험의 경우나 종말의식 등이 더 하여지는 것이 많은 부분이 동물생태와 다를 것이 없다. 인간집합의 생태는 도시마다에 단지 회화적인 설명으로만이 아닌 집합원리의 전형들로 나타나 있다. 밤의 티볼리는 그런 장소이다.

이 넓은 거리에 차도 사람도 잘 보이지 않고 복해의 찬 바닷바람과 어두운 잿빛하늘만 길에 가득한 이 도시의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밝은 흰소가 왔는가. 대낮의 침잠이 밤의 화려함으로 바뀌어 있다. 가라앉은 조적조의 도시 한가운데 이런 환하고 밝은, 꽃이 가득한 새로운 정경이 매일 문을 연다. 우리는 어두운 구석을 찾아가는데 이들은 밝은 곳으로, 우리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이들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간다. 이 도시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 도시 거의가 다 그렇다. 집들이 그렇고 거리가 그렇고 카페들도 그렇다. 길마다 비어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도처가 사람이다. 집에도 마을에도 길에도. 우리는 사람에게 지쳐 있다. 쉰다는 일은 사람을 안만나는 일이다. 이들에게 쉰다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장소는 어울리기도 힘들고 유지되기도 어렵다. 멀정한 사람도 이런 곳에 오면 우리는 양아치가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쉬는 일이고 나이다운 일이다. 인간집합의 과도한 스케일은 원래의 집합원리를 상실케한다.

근 100년에 걸친 불안정한 준전시상태의 연속이 만든 파면과 밀도는 우리에게 이런 공원을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다.

티볼리의 밤은 더 없이 아름답다. 창경원 밤 벚꽃놀이가 20만인파가 아니면 여기보다 아름답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고밀도 집합사회의 원리를 더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 작은 도시 코펜하겐에 200개가 넘는 공원이 있고 그 자체가 완벽한 공원인 강이 도시 한 가운데를 흐른다. 인왕산, 한강까지 공원면적으로 계산하고 자위하는 환각을 버리고 서울의 도시다운움을 복원해야 한다. 중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업무지구를 만든다거나 재개발지구를 입도선매의 종합상가로 만드는 따위의 일은 도시의 도시다운움을 파괴하는 전범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개인의 성을 쌓는 데에 전생을 바친다. 그 개인의 성은 더 큰 성 안에서만 자립되는 것이다. 개인과 가문을 위한 새세대의 엄청난 비리와 집념이 2대를 못가는 이유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대신 자기들의 성만을 쌓는다. 그것은 성이 아니다. 사회의 성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장소를 갖는 것이다.

남들은 인구 100만일 때의 80년 전에 만든 지하철을 지금 만든다고 도시전부를 파헤치고 있는 800만의 거대도시 서울은 과연 무엇인가. 갑구정동, 잠실을 지나는 도로변 차창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군의 불켜진 창들을 바라보노라면 괴이한 공물을 보는 전율이 있다. 조국근대화를 부르짖던 일부 극소수 인사에 의한 도시문명의 퇴락은 상상키 힘든 필적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티볼리의 밤은 사람이 모여 산다는 일, 특히 도시에서 사는 일의 즐거움과 만남의 열락을 말하여 준다. 도시의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도시다운의 가능성을 잿빛 하늘의 북해연변에서 배운다.

'81. 7 스투홀름, 아스플란트

현대건축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고립적인 위대한 건축을 보았다. 건축은 필요에 구속되어 있으나 그 필요를 초극하는 거의 형이상학적이기까지한 이성의 경지를 표현할 수 있으리라던 생각의 실재를 보았다. 필요의 과장, 책사에 불과한 개인적 취

향의 과시, 고전의 자의적 왜곡만을 보여온 최근의 현대건축 와중에 이런 엄청난 만남을 당도한다. 주위 자연과의 비의적 조우, 건축의 모든 부분들과 보이지 않는 배후의 스트럭처어와의 내밀한 긴장, 공간형식의 단계적 진전이 이루는 움직임 속에서의 변환과 생성—그러나 이런 것을 말하거나 써도 이 감동에서는 정곡이 아니다. 떨어진 주위의 삼림 속 곳곳의 무덤들, 반추상 공간과 여기서 이어간 담과 벽들이 주는 서정의 아름다움은 차라리 숙연하다.

이곳은 죽은자를 위한 장소이다. 하나의 건축물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의 가장 고전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다. 과거의 건축은 그러한 형이상학 작인이었다. 신사의 유적과 고대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형이상학을 생각한다. 중세의 도시에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이 경직하게 나타나 있다. 중세 이후 형이상학의 문제는 건축가의 명제가 아니게 되었다. 차츰 건축가들은 현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고 그 영광도 이제는 필요에로 국한되어 간다. 인간집합의 원리가 근대도시의 근간이 되었다. 집합하여 사는 일의 형식 속에서 건축가는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가우디는 이러한 경우의 위대한 건축가였다. 여기 스투홀름의 화장장에서 아스플란트는 모든 건축가가 잊은 건축본래의 형이상학적 질문을 한다. 현대건축에서 죽음을 이렇게 정면에서 부닥트린 경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는 죽음의 정체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죽는다는 사건을 그는 생각한다. 그는 기억과 추상,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 지대를 만들었다. 그는 건축가로서 죽음을 대면하였다. 여기는 사실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피안의 외곽, 피안의 한 실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이다. 그의 형이상학적 언명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건축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우리가 오랜 동안 잊고 있었던 건축본래의 명제를 극도로 절제된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위대한 작가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곳이다. 한 인간이 이런 것을 그려낼 수 있다니!(*)